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1권3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Vol. 11 No. 3 (2011) pp.1-13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 패션디자인의 색채 특성
- 2005년부터 2009년 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

정 영 선 · 조 주 연 · 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의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난 색채의 특성을 분석하고 브랜드의 색채 특성을 규명해 봄으로 패션디자인 분야의 조화로운 색채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2005년 S/S부터 2009년 F/W까지의 에밀리오 푸치 작품을 웹사이트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사진들을 일정한 형식(jpg)으로 저장한 후, Munsell Conversion(10.0 version)을 이용하여 HV/C 값으로 변하여 색채를 추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멘셀 40색상의 특징은 7.5YR에서 10Y 계열의 노란 기를 띠는 색상과 7.5PB에서 5RP 계열의 붉은 기를 띠는 색상의 사용 빈도가 두드러지며 S/S 컬렉션의 색 사용이 F/W 컬렉션보다 다양하게 보여 진다.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먼셀 10색상과 PCCS 색조의 특징은 색상은 Y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PB, P순으로 색조는 고명도·저채도의 p, 고명도·중채도의 lt, 고명도·중채도의 sf순으로 보여 지며, 계절에 상관없이 Y, PB 계열의 색과 고명도·저채도의 p, 고명도·중채도의 lt의 출현 빈도가 높다.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색상과 색조에서 G, BG, B와 v, dp, dk의 출현 빈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배색 특징은 대비색상 배색의 출현 빈도가 높았으며, 무채색은 W, B순으로 보여 지고, 2009년 컬렉션으로 갈수록 사용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

주제어: 에밀리오 푸치, 먼셀 컨버전, 먼셀 10색상, 먼셀 40색상, PCCS 색조

접수일: 2011년 6월 6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1년 7월 27일
교신저자: 이연희, yiyhee@hanyang.ac.kr

I. 서 론

패션 디자인은 색채, 형태, 소재 등 디자인 요소의 구성에 의한 것이며, 그 중 색채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색은 쉽게 인식되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 시각적 효과가 매우 크며,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디자인과 동시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색의 패션을 더욱 선호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색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패션 색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로는 패션디자이너와 색채에 관한 연구(김수영 외 2009[1]; 김유경 2008[2]; 이승아 외 2009[3]), 패션 배색에 관한 연구(김미진 외 2007[4]; 장정임 외 2009[5]; 조주연 외 2006[6]), 색과 코디네이션 및 특정 색채에 관한 연구로는 정수인(2007)[7]의 연구와 권혜숙(2008)[8]의 연구가 있다<표 1>.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특정 디자이너에 대한 색채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는 다양한 색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브랜드 중의 하나이며, 한 벌의 디자인에서 작게는 2가지 색부터 많게는 15가지 색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색은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밀리오 푸치 패션디자인에서 나타

<표 1> 주제별 선행연구

주제	제목	연구결과	연구자
디자이너와 색채	국내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디자이너의 색채 배색연구	색채 활용 빈도는 R(red)계열, Y(yellow)계열, N(무채색)계열, G(green)계열 순으로 나타남.	김유경 (2008)
	베르사체 디자인에 나타난 색채 특성: 2000년~2006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검은색에 대한 꾸준한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고, R계열과 P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Y계열이, 그 다음으로 B계열과 G계열이 비슷하게 나타남.	김수영 외 (2009)
	소니아 리키엘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 색채 특성	계절에 상관없이 회색조(dkg)의 빨강(R)이 다른 색상 색조보다 두드러지게 보임.	이승아 외 (2009)
배색	국내 여성복 패션 이미지에 따른 배색연구	패션디자인의 색채 계획 과정에서 단색 이미지에 의한 상의의 색채를 결정한 후 하의의 배색을 고려할 때 배색의 속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이미지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조주연 외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청색의 배색 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 패션은 배색에 있어 색상과 색조의 변화에 따른 패션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남.	김미진 외 (2007)
	남성 패션에 나타난 청색의 배색 특성	청색 샘플 중 PB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B가, 그 다음으로는 BG가 사용되었음.	장정임 외 (2009)
코디네이션 및 특정 색채	현대패션에 나타난 분홍색의 색채 특성과 배색연구	F/W시즌보다 S/S시즌에 분홍색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 10P에서 5YR의 색상을 중심으로 strong, bright, light grayish, pale 색조에 분포하고 있어, 선명한 분홍색과 밝고, 옅은 색상 영역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배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유채색 배색이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YR, R이 높은 빈도를 보이면서 유사색상과 근접색상 배색이 높은 빈도를 차지함.	정수인 외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 특성-파리, 밀란, 뉴욕, 런던 컬렉션 중심으로	뉴욕과 파리는 2배색 색채 코디네이션의 발생율과 검정색의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런던과 밀란에서 두 배색 코디네이션에 따른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 발생 빈도가 뉴욕과 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권혜숙 (2008)

난 색채의 특성을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에밀리오 푸치 브랜드의 색채 특성을 규명하고 조화로운 색채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과 인터넷 등을 통하였다. 수집된 방법으로 에밀리오 푸치 패션 디자인 색채 특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2005년 S/S부터 2009년 F/W까지의 에밀리오 푸치 작품을 패션 정보 사이트인 퍼스트뷰 코리아(www.firstview korea.com)와 패션넷코리아(www.fashionnetkorea.com)의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색채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사진들을 일정한 형식(jpg)으로 저장한 후, Munsell Conversion 10.0 version을 이용하여 HV/C 값으로 변환하였다. 이 연구의 색채 자료는 먼셀 색체계에 의한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의 10가지 색상과, 이 10가지 색상을 4단계로 세분화한 40색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색조는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에 의한 p(pale), ltg(light grayish), g(grayish), dkg(dark grayish), lt(light), sf(soft), d(dull), dk(dark), b(bright), s(strong), dp(deep), v(vivid)의 12색조와 무채색 W(White), ltGy(light Gray), mGy (medium Gray), dkGy(dark Gray), Bk(Black)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디자인은 427벌이며, 추출된수는 1682색이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디자인과 추출된 색의 수

년도	시즌	디자인 수	추출된 색의 수
2005	S/S	69	421
	F/W	34	160
2006	S/S	120	202
	F/W	16	72
2007	S/S	37	217
	F/W	57	110
2008	S/S	28	162
	F/W	23	137
2009	S/S	32	165
	F/W	11	36
	합계	**427**	**1682**

II. 에밀리오 푸치 디자인의 특징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에밀리오 푸치는 식물에서 모티프를 얻어 무늬를 고안하였고, 1947년에 발표하였으며 1948년 '하퍼스 바자'에 스키웨어 디자인<그림 1>이 실린 것을 계기로 이름이 부각되었다.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프린트에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여, 우아함을 성공적으로 표현한 디자이너이다[9]. 색상은 선명한 색조의 화려한 색채가 주로 사용되었고, 기하학적 무늬를 도입한 것이

<그림 1> 에밀리오 푸치, 스키웨어, 1948 (출처: 『Emilio Pucci』, 1996, p.24)

<그림 2> 에밀리오 푸치, 프린트 비키니, 1960년대 (출처: 『Pucci A Renaissance in Fsahion』, 1991, p.97)

<그림 3> 에밀리오 푸치, 다양한 색상의 프린트, 1960년대 (출처: 『Pucci A Renaissance in Fsahion』, 1991, p.165)

<그림 4> 에밀리오 푸치, Harper's Bazaar, 1963 (출처: 『Emilio Pucci』, 1996, p.26)

<그림 5> 에밀리오 푸치, F/W 밀라노 컬렉션, 1966 (출처: 『Emilio Pucci』, 1996, p.86)

<그림 6> 크리스찬 라크르와, 2005 S/S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크리스찬 라크르와, 2005 F/W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8> 크리스찬 라크르와, 2006 S/S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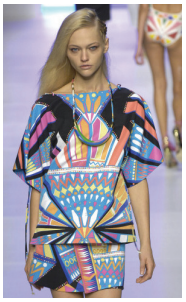
<그림 9> 매튜 윌리암슨, 2006 F/W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매튜 윌리암슨, 2007 S/S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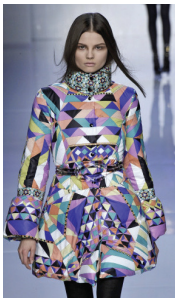
특징이며 구상화와 같은 느낌으로 이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하학적인 무늬의 에밀리오 푸치 패션디자인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스커트·원피스·블라우스·재킷·이브닝드레스·풀오버 등의 의류뿐만 아니라 스카프·신발·지갑·가방·모자·속옷·수영복<그림 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선 보였으며, 소재로는 에밀리오 푸치 프린트<그림 3>의 화려한 이미지를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하여 실크 또는 새틴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10]. 에밀리오 푸치는 1950년대 뛰어난 창의성으로 세계의 패션을 이끌어오던 파리 패션계의 권위를 이태리로 옮겨 놓은 혁신적인 일을 담당하였고, 그의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은 의복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부과한 동시에 색채와 프린트를 통하여 그의 창조적인 정신세계를 미적으로 표현하였다[11].

초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그림 4>는 미국판 바자(Bazaar)의 1963년 12월호에 실린 커버사진으로 비비드 하면서 강렬한 색상을 볼 수 있으며, <그림 5>는 1966년 F/W 컬렉션으로 에밀리오 푸치의 기하학적인 무늬와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푸치의 디자인 정신을 이어서 2005년 S/S 컬렉션부터 2006년 S/S 컬렉션은 크리스찬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가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한 추상적인 패턴과 비비드한 색채를 사용하여 우하하고 여성적인 디자인을 발표하였고, 2006년 F/W 컬렉션부터 2009년 S/S 컬렉션에서는 영국 출신의 다자이너 매튜 윌리암슨(Matthew Williamson)이 식물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으로 패턴에 표현한 에스닉 하면서도 독특한 프린트와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2009년 F/W 컬렉션부터는 피터 하이드 둔다스(Peter Hyde Dundas)가 색채를 조화롭게 사용한 모던한 디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6>, <그림 7>은 2005년 S/S, F/W 컬렉션으로 직선과 곡선이 다양한 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림 8>, <그림 9>는 2006년 S/S, F/W 컬렉션으로 가로 줄무늬가 특징적이고 추상적인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2007년 S/S, F/W 컬렉션으로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추상적인 무늬가 강조된 디자인이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2008년 S/S, F/W 컬렉션으로 좌·우의 기하학적인 모티브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 안정감을 주며, <그림 14>와 <그림 15>는 2009년 S/S, F/W 컬렉션으로 여성스러우며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밀리오 푸치의 패션디자인은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와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선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매튜 윌리암슨, 2007 F/W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2> 매튜 윌리암슨, 2008 S/S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ashionnetkorea.com)



<그림 13> 매튜 윌리암슨, 2008 F/W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ashionnetkorea.com)

<그림 14> 매튜 윌리암슨, 2009 S/S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ashionnetkorea.com)

<그림 15>피터 하이드 둔다스, 2009 F/W 밀라노 컬렉션 (출처: www.fashionnetkorea.com)

1. 컬렉션별 먼셀 40색상의 분석

2005년 S/S 컬렉션에서는 5P에서 7.5RP까지 다양한 색상 변화로 나타나며, F/W 컬렉션에서는 2.5YR에서 5Y 계열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S/S 컬렉션이 F/W 컬렉션보다 5P에서 10RP 계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표 3>.

2006년 S/S 컬렉션과 F/W 컬렉션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하며 공통적으로 PB, P 계열이 보여 지고, F/W에서 S/S 시즌에 비하여 다소 붉은 기가 있는 PB, P 계열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표 3>.

2007년 S/S 컬렉션과 F/W 컬렉션은 그래프의 모양이 좌우 대칭의 형태로 보여 지고 있으며, S/S 컬렉션은 붉은 기가 있는 PB 계열의 사용이, F/W 컬렉션에서는 노란 기가 있는 Y 계열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표 3>.

2008년 S/S 컬렉션에서는 노란 기가 있는 10YR에서 2.5GY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파란 기를 띠는 2.5PB에서 7.5PB도 나타나고 있으며, F/W 컬렉션에서는 다른 컬렉션들에 비해 색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알 수 있다<표 3>.

2009년 S/S 컬렉션에서는 노란 기가 있는 2.5Y에서 7.5Y가 사용되었으며, F/W 컬렉션에서는 붉은 기가 있는 5YR에서 5Y 계열의 출현 빈도가 높다. 이는 Y 계열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F/W 시즌에는 다소 붉은 기가 있는 YR 방향으로 사용색상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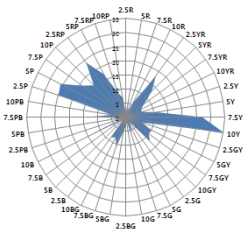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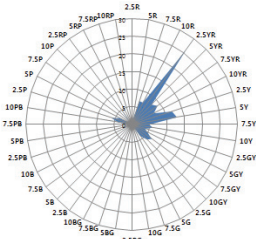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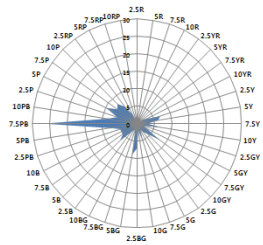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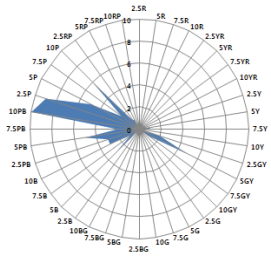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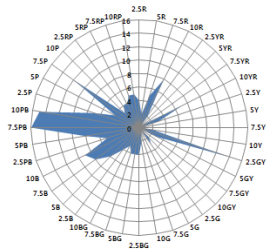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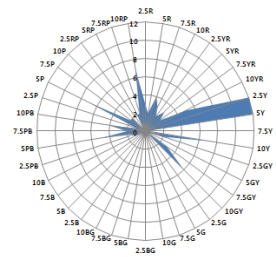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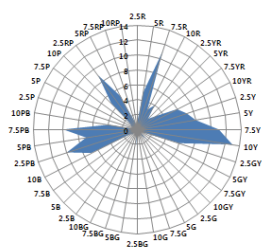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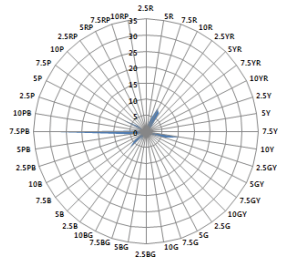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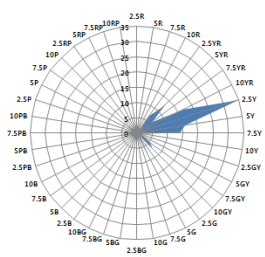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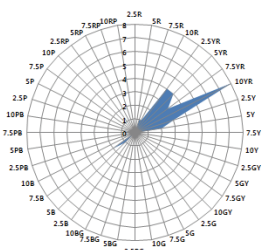
2005년~2009년까지 S/S 컬렉션에서는 2.5YR에서 10Y의 노란색 계열이 많이 보여지고, 붉은 기띠는 7.5PB에서 5RP의 보라색 계열 출현 빈도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으며, F/W 컬렉션에서는 노란기를 띠는 2.5YR에서 5Y 계열과 보라색 계열의 .5PB에서 2.5P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전체적인 40색상을 분석하면 7.5YR에서 10Y의 노란색 계열의 색상과 7.5PB에서 5RP의 붉은 기를 띠는 보라색 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 되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색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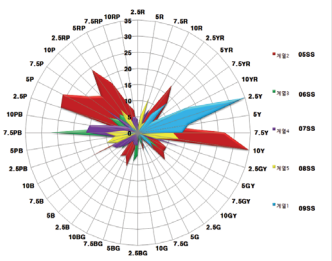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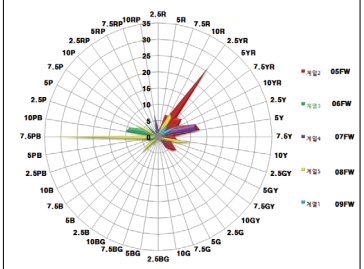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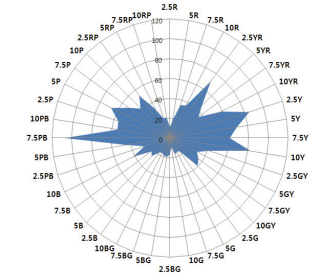
2. 컬렉션별 먼셀10색상과 PCCS 색조의 특성

2005년 S/S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P(21.8%), Y(20.1%), RP(14.5%) 순으로 사용되었고, 색조는 고채도·고명도의 b(15.2%), 다음으로 저채도·고명도의 p(12.7%), 중채도·중명도의 sf(12.7%), 중채도·중명도의 d(12.7%)가 같은 빈도로 나타났으며<그

<표 3> 컬렉션별 40색상 분석

년도	S/S 컬렉션 40 색상 분석	F/W 컬렉션 40색상 분석
2005		
2006		
2007		
2008		
2009		

<표 4> 시즌별 40색상과 전체 40색상 분석

S/S 40색상 분석	F/W 40색상 분석	40색상 분석 종합
		

림 16>, F/W 컬렉션에서는 YR(33.3%), Y(24.%), GY(14.7%)순으로 사용되었고 색조는 중채도·중명도 d(18.7%), 다음으로 중채도·저명도의 dk(14.7%), 저채도·저명도의 dkg(14.7%)가 같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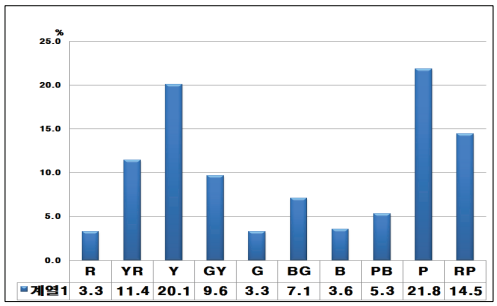
2006년 S/S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PB(26.1%), P(16.5%), Y(12.2%)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났으며, 색조는 저채도·고명도의 p(19.7%), 저채도·중명도의 ltg(19.1%), 중채도·중명도의 sf(16.5%)순으로 사용되었고<그림 18>, F/W 컬렉션에서는 P(33.3%), PB(30.3%), GY(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는 저채도·고명도의 p(21.2%), 고채도·고명도의 b(13.6%), 저채도·저명도의 dkg(13.6%), 중명도·저채도 ltg(13.6%)가 같은 빈도로 보여지고 있다<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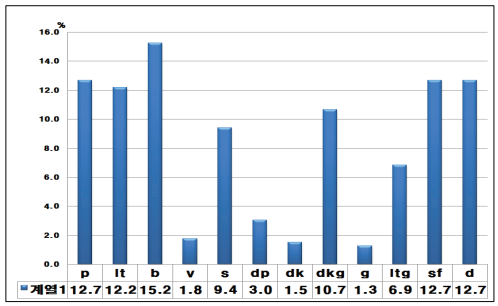
2007년 S/S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PB(23.3%), 다음으로 B(14.3%)와 P(14.3%)가 같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색조는 저채도·고명도의 p(21.7%)와 중채도·고명도의 lt(21.7%)가 같은 빈도수를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채도·중명도의 sf(11.6%)가 사용되었고<그림 20>, F/W 컬렉션에서는 Y(29.4%)가 가장 많이 보여 지고, R(11.8%), YR(11.8%), PB(11.8%), P(11.8%), RP(11.8%) 계열이 같은 빈도수를 보이며 색조는 고채도·고명도의 b(17.6%), 중채도·고명도의 lt(13.7%), 저채도·중명도 g(12.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

2008년 S/S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Y(25.5%), PB(20.3%), R(13.1%) 순으로 나타났고, 색조는 저채도·고명도의 p(25.5%), 고채도·고명도의 b(18.8%), 중채도·중명도의 sf(14.4%)순으로<그림 22>, F/W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PB(33.1%), B(11.3%), R(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는 저채도·고명도의 p(24.2%), 중채도·고명도의 lt(21.8%), 저채도·중명도의 ltg(12.9%)순으로 사용 되었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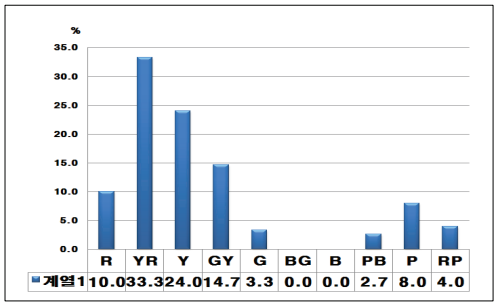
2009년 S/S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Y(39.8%), YR(26.7%), GY(9.9%)의 순으로 사용되었고, 색조는 중채도·고명도의 lt(20.5%), 저채도·고명도의 p(19.9%), 중채도·중명도의 sf(15.5%)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 F/W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YR(58.8%), Y(14.7%)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B(8%)와 PB(8%)가 같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색조는 저채도·저명도의 dkg(29.4%) 다음으로 저채도·고명도의 p(17.6%)와 저채도·중명도의 ltg(17.6%)가 같은 빈도로 사용되었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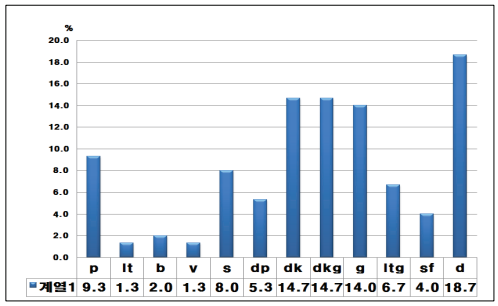
2005년~2009년까지 S/S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Y(19.4%), P(14.7%), PB(14.2%) 순으로 나타나며, 색조는 저채도·고명도의 p(18.3%), 중채도·고명도의 lt(14.4%), 중채도·중명도의 sf(13.8%)의 빈도로 보여 지며, F/W 컬렉션의 색상을 분석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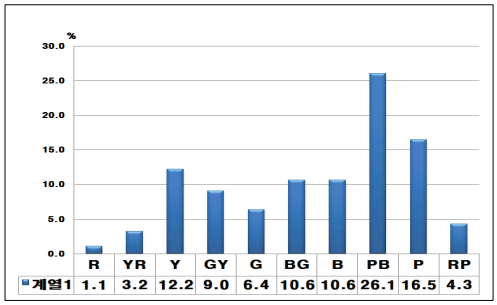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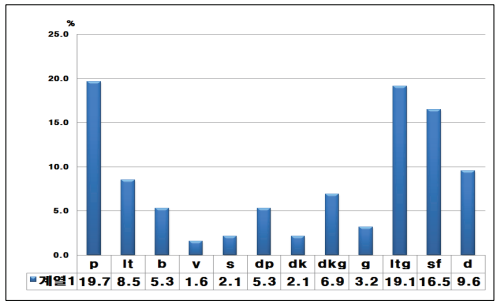
<그림 16> 2005년 S/S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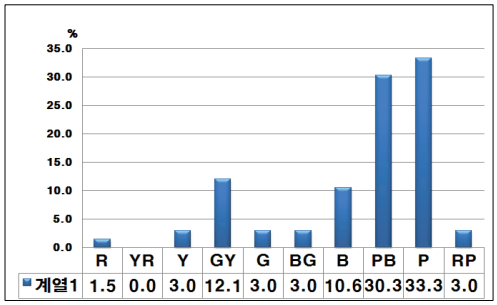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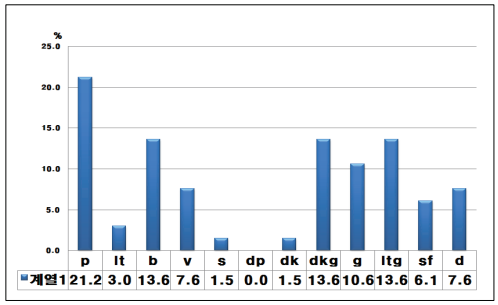
<그림 17> 2005년 F/W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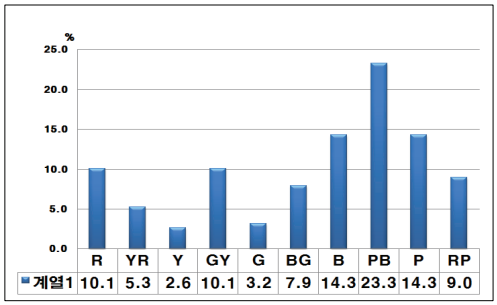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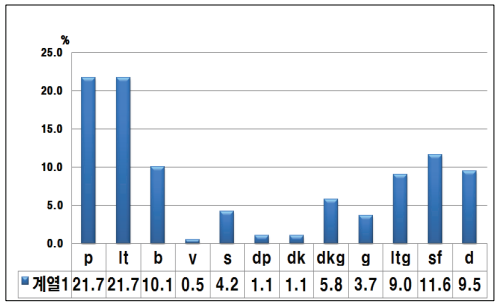
<그림 18> 2006년 S/S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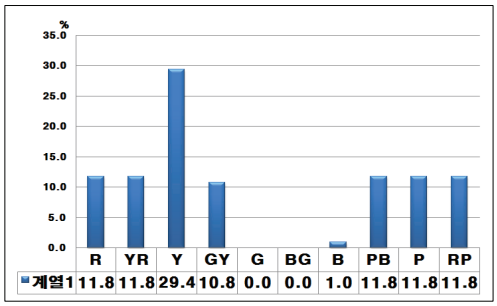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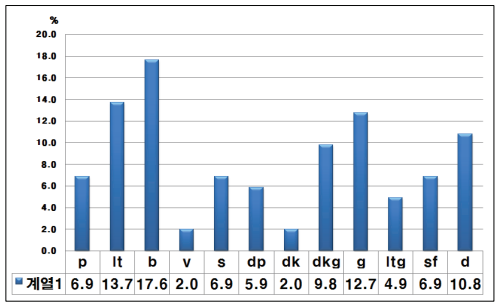
<그림 19> 2006년 F/W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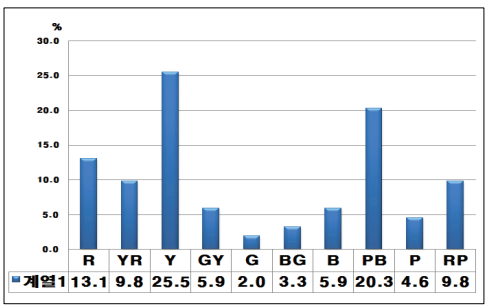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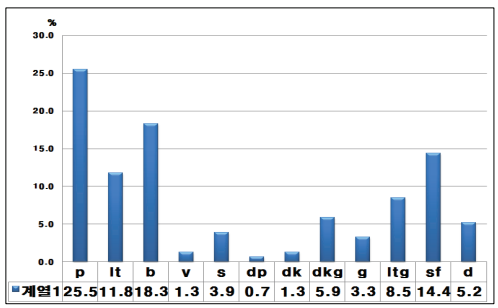
<그림 20> 2007년 S/S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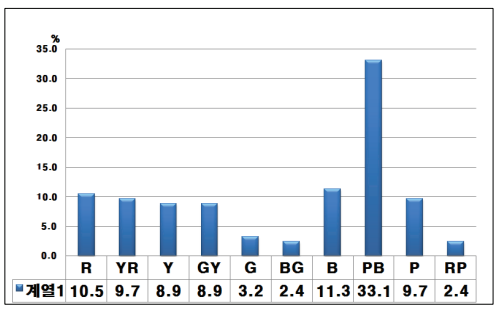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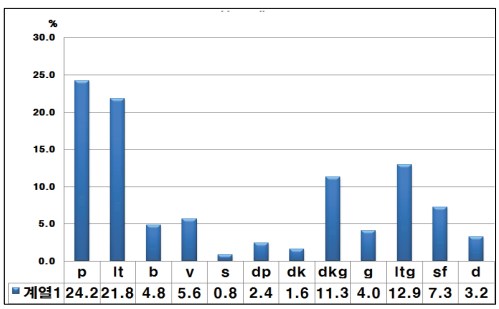
<그림 21> 2007년 F/W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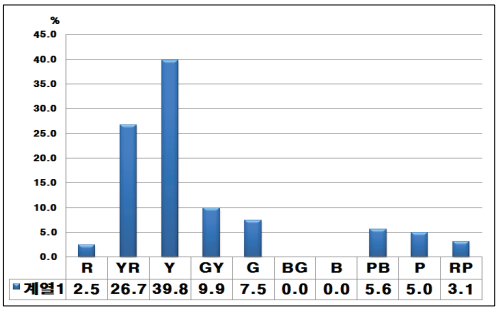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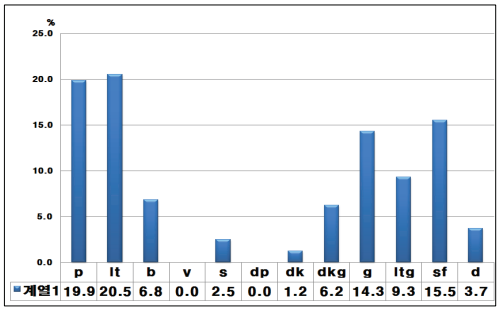
<그림 22> 2008년 S/S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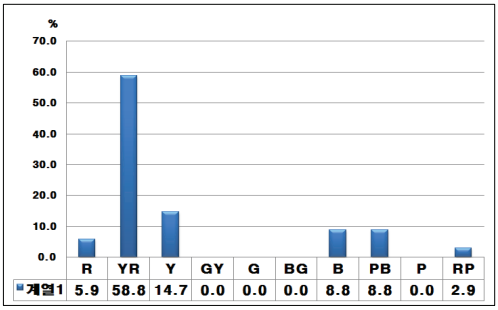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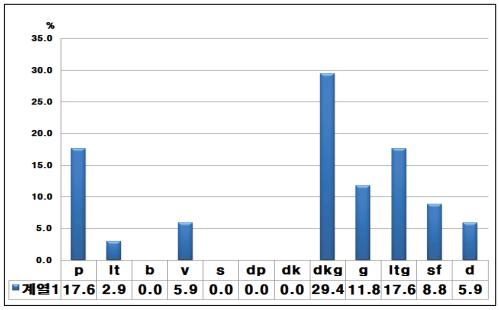
<그림 23> 2008년 F/W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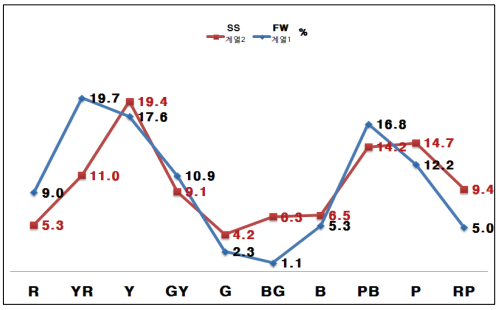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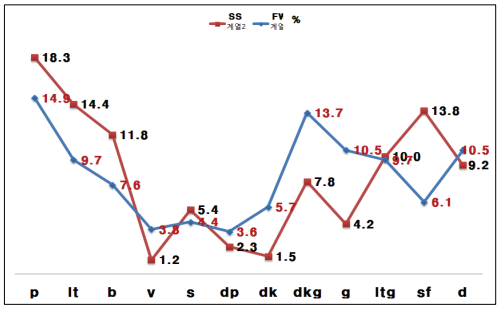
<그림 24> 2009년 S/S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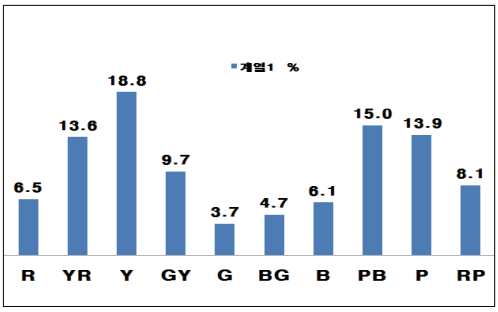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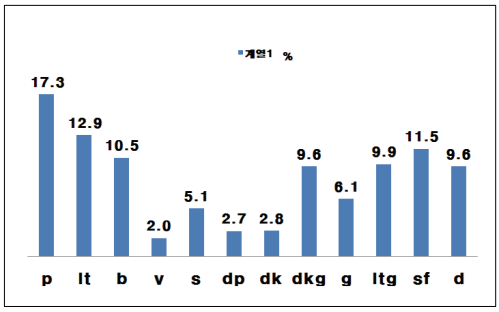
<그림 25> 2009년 F/W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그림 26> 2005년~2009년 S/S 컬렉션과 F/W 컬렉션 각각의 10색상, 색조 분석





<그림 27>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 10색상, 색조 분석

YR(19.7%), Y(17.6%), PB(16.8%) 순으로 색조는 저채도·고명도의 p(14.5%), 저채도·저명도의 dkg(13.7%), 저채도·중명도의 g(10.5%)와 저채도·저명도의 d(10.5%)가 같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6>.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전체적인 색상을 분석하면 Y(18.8%) PB(15%), P(13.9%)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색조를 분석하면 저채도·고명도의 p(17.3%), 중채도·고명도의 lt(12.9%), 중채도·중명도의 sf(11.5%)순임을 알 수 있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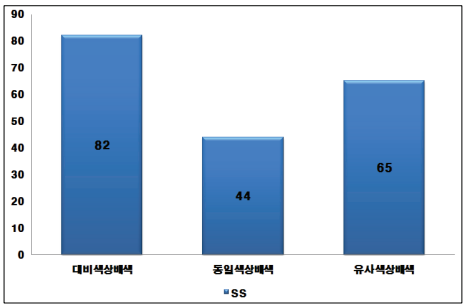
3. 배색 및 무채색의 특성 분석

2005년 S/S~2009년 S/S 컬렉션<그림 28>에서는 대비색상 배색, 유사색상 배색, 동일색상 배색 순이며, 2005년 F/W~2009년 F/W 컬렉션<그림 29>에서는 유사색상 배색, 대비색상 배색, 동일색상 배색 순으로 보인다.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전체적인 배색의 특성은 대비색상 배색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사색상 배색, 동일색상 배색 순으로 빈도를 보인다<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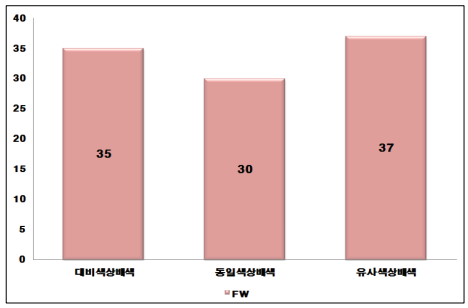
무채색은 W(54%), B(28%) 주로 사용 되었고,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S/S 컬렉션과 2007년 S/S 컬렉션에 많이 사용 되었으며, 2009년 컬렉션으로 갈수록 사용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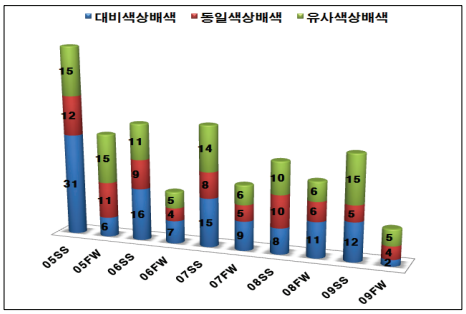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에밀리오 푸치 패션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색이 어떠한 색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에밀리오 푸치 브랜드의 색채 특성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색채 분석 연구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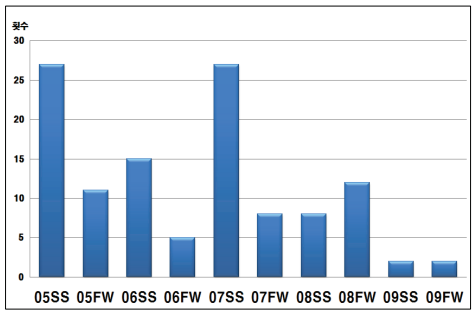
<그림 28> 2005년 S/S~2009년 S/S 배색 분석



<그림 29> 2005년 F/W~2009년 F/W 배색 분석



<그림 30> 2005년 S/S~2009년 F/W 배색 분석



<그림 31> 2005년 S/S~2009년 F/W 무채색 분석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수집된 총 427장의 사진에서 색채 샘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40색상의 특성은 7.5YR에서 10Y 계열의 노란 기를 띠는 색상과 7.5PB에서 5RP 계열의 붉은 기를 띠는 색상의 사용 빈도가 두드러지며 S/S 컬렉션의 색 사용이 F/W컬렉션 보다 다양하게 보여 진다.

둘째, 2005년 S/S~2009년 F/W컬렉션의 10색상과 색조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색상은 Y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PB, P순으로 색조는 고명도·저채도의 p, 고명도·중채도의 lt, 고명도·중채도의 sf순으로 보여 지며, 계절에 상관없이 Y, PB 계열의 색과 고명도·저채도의 p, 고명도·중채도의 lt의 출현 빈도가 높다.

셋째, 2005년 S/S~2009년 F/W컬렉션의 색상과 색조에서 G, BG, B와 v, dp, dk의 출현 빈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넷째, 2005년 S/S~2009년 F/W 컬렉션의 전체적인 배색은 에밀리오 푸치 패션디자인의 비비드하고 화려한 색상의 조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비색상 배색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다섯째, 무채색은 W, B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 S/S 컬렉션과 2007년 S/S 컬렉션에 많이 사용되었고, 2009년 컬렉션으로 갈수록 사용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에밀리오 푸치 패션디자인에서는 색상과 색조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고 미적으로 조화롭게 지각되며, 색상의 배색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이미지를 고려하고 시즌별로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패션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밀리오 푸치 디자인의 독창적인 색채 특성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보다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색채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에밀리오 푸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색채를 수집하기 위해 패션정보사의 웹사이트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색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무대조명의 영향으로 같은 의상이라도 색이 다르게 추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 본래의 색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의 상의 색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수영, 김혜수, 이연희 (2009). 베르사체(Versace)디자인에 나타난 색채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2), pp.31-46.
2) 김유경 (2008). 국내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디자이너의 색채배색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1), pp.56-66.
3) 이승아, 조주연, 이연희 (2009). 소니아 리키엘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 색채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3), pp.1-12.
4) 김미진, 김연희, 김혜수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청색의 배색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1(3), pp.45-56.
5) 장정임, 조주연, 이연희 (2009). 남성 패션에 나타난 청색의 배색 특성, 복식문화연구, 17(2), pp.309-319.
6) 조주연, 김영인 (2006). 국내 여성복 패션 이미지에 따른 배색연구, 복식학회, 56(4), pp.160-170.
7) 정수인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분홍색의 색채 특성과 배색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9.
8) 권혜숙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 특성,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4), pp.73-87.
9) 삼성디자인넷(검색어: 에밀리오 푸치), 검색일 2011. 4. 5. http://www.samsungdesign.net
10)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에밀리오 푸치), 자료검색일 2011. 3. 30. http://100.naver.com
11) 박선경 (1995). Pucci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9(1), p.70.

A Study on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Emilio Design by Emilio Pucci

- With a Focus on Milano Collections from 2005 to 2009 -

Chung, Young Sun · Cho, Ju Yeon · Lee, Youn He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Yuhan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designs by Emilio Pucci, to identify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Emilio Pucci bran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armonious color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web sites about the works of Emilio Pucci from the 2005 S/S season to the 2009 F/W season. After storing the collected photos in jpg format, the investigator converted them into HV/C values and extracted colors using Munsell Conversion.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the 40 Munsell hues of the collections from the 2005 S/S season to the 2009 F/W season can be characterized by the outstanding frequency of yellows from 7.5YR to 10Y and reddish colors from 7.5PB to 5RP. The color uses were more diverse in the S/S collections than the F/W collections. The 10 Munsell hues and PCCS colors of his collections from the 2005 S/S to 2009 F/W season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highest frequency of Y, which is followed by PB and P, in order of most frequent. The most frequent shades in order were p of high luminosity and low chroma, lt of high luminosity and medium chroma, and sf of high luminosity and medium chroma. The frequency of Y and PB colors, p of high luminosity and low chroma, and lt of high luminosity and medium chroma was high regardless of the season. The frequency of colors such as G, BG, and B and shades such as v, dp, and dk was considerably low in from the 2005 S/S to 2009 F/W seasons. The color arrangements of the collections from 2005 to 2009 can be characterized by the high frequency of arrangement of contrasting colors, the frequent use of achromatic colors in the order of W and B, and the increasingly lower frequency of achromatic colors towards the 2009 collections.

Key words: Emilio Pucci, Munsell Conversion, Munsell 10 hues, Munsell 40 hues, PCCS tone